

분리성 통사원자의 유형별 검토*

이 호 승
(충북대학교)

1. 머리말

국어 문법 연구에서 단어는 원칙적으로 그 내부가 다른 단어나 휴지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 내적 비분리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도 일부 단어들은 내부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는 점도 인정한다. ‘X-하다’가 대표적인 예인데, ‘깨끗은 하다’, ‘수학을 공부 안 했다’ 등과 같이 ‘깨끗하다’, ‘공부하다’의 내부에 보조사나 부정부사가 삽입될 수 있다.²⁾

그런데 ‘X-하다’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이와 유사한 부류들인 ‘X-되다, X-받다, X-당하다, X-시키다’ 등에도 보조사나 부정부사의 삽입이 가능하다. 가령 ‘이것은 연구가 안 되어 있다’, ‘강물을 오염까지 시킨다’ 등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3).

- 1) 고영근·구본관(2008: 33)에서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는 문장 내에서 자리가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부에 휴지를 둘 수 없으며 다른 단어를 넣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단어 내부가 분리되는 현상을 임흥빈(1979)는 ‘어근분리현상’으로, 허철구(1997)은 ‘어기분리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단어의 내적 분리 현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지, 단어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예이다. 따라서 국어 단어의 내부 분리 현상을 예외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단어의 내부 분리 현상을 제대로 기술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언어 층위에 따라 단어를 독립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즉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등의 언어 층위에 따라 분할해서 단어를 정의하고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호승(2013)에서는 통사적 단어의 어휘부 성격과 통사부 성격을 반영하고, 기존의 어휘고도계약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통사원자³⁾를 새롭게 정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통사원자를 비분리성 통사원자와 분리성 통사원자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호승(2013)은 ‘공부-하다’, ‘방해를 놓다’, ‘이야기를 나누다’와 같은 복합서술어⁴⁾와 ‘바가지를 긁다’, ‘비행기를 태우다’와 같은 관용표현에 국한하여 논의해서, 분리성 통사원자로 볼 수 있는 여러 형식들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본고는 파생어, 기능적 복합구성,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이 형식들이 분리성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⁵⁾ 우선 2장에서는 복합서술어와 ‘바가지를 긁다’ 부류의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이호승(2013)이 제안한 분리성 통사원자의 핵심 특성들을 새롭게 검토한 다음에, 3장에서는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이 파생어, 기능적 복합구성, 관용표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본고는 통사론의 최소 단위를 뜻하는 용어로 문맥에 따라 ‘단어, 통사론적 단어, 통사원자’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4) 이호승(2003)은 [명사+조사+동사]형 복합서술어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통사원자로서, 내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의 성격을 갖는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호승(2013)은 ‘X-를 하다’는 어휘부에 등재된 ‘X-하다’가 통사부에서 ‘를’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보았고, 연어적 복합서술어인 ‘방해놓다’는 어휘부 등재소인 ‘방해를 놓다’가 통사부에서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분리성 통사원자의 검토 대상으로는 파생어, 기능적 복합구성, 관용표현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으나 본고는 일단 이들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II.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과 특성

단어들이 결합하여 통사적인 구나 문장을 이루는 규칙과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통사론이라고 할 때, 통사론의 최소 단위인 단어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일은 통사론 연구의 기본 과제이면서 핵심 과제이다. 그런데 박진호(1994), 한정환(2009, 2011) 등에서 지적했듯이⁶⁾, 전통적인 단어 정의들에는 음운론적 성격, 형태론적 성격, 통사론적 성격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국어의 품사 설정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통사론적 단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분석적 체계, 종합적 체계, 절충적 체계가 제안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본고는 해당 언어 층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여, 이호승(2013)에서 통사론적 단어, 즉 통사원자를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통사규칙이 적용되는 최소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우선 검토해야 할 점은 본고의 통사원자는 내적 비분리성을 갖는 전통적인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 (1) 가. 철수는 아침을 먹었다.
나. 영희는 얼굴이 예쁘다.
- (2) 가. 내내는 남편{을/에게} 바가지를 심하게 굶었다.
나. 내내는 가끔 아주 심한 바가지를 굶곤 했다.
다. 바가지를 굶다: <NP-가, NP-{에게/를}>⁷⁾
- (3) 가. 동료들은 나를 공연히 비행기를 가끔 태웠다.
나. 나를 더 이상 그런 비행기를 태우지 마라.
다. 비행기를 태우다: <NP-가, NP-를>

6) 박진호(1994)는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로 구분하였고, 한정환(2009, 2011)은 음성적 단어, 음운적 단어, 형태적 단어, 통사적 단어, 어휘적 단어 등으로 구분하였다.

7) 논항구조의 정보 내용과 표기 방식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본고는 별다른 논의 없이 논항들의 격조사 결합형을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

(1ㄱ)의 동사 ‘떡다’⁸⁾와 (1ㄴ)의 형용사 ‘예쁘다’는 논항구조를 갖는 용언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고, 화자는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하여 통사규칙에 따라 서술어로 사용한다. 관용표현인 (2)의 ‘바가지를 굶다’와 (3)의 ‘비행기를 태우다’는 화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관용적 의미를 갖기에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통사부에서는 서술어로 기능한다. (1)의 용언과 (2), (3)의 관용표현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고,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통사규칙에 따라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1)의 ‘떡다’, ‘예쁘다’는 통사적 단어임이 자명하지만, (2)의 ‘바가지를 굶다’와 (3)의 ‘비행기를 태우다’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통사적 단어가 아니라 관용적 의미를 갖는 통사적 구성, 즉 관용구로 처리하기도 한다. 관용구로 보는 견해는 (2), (3)의 관용표현들이 (2ㄴ), (3ㄴ)의 부사어 삽입 현상, (2ㄷ), (3ㄷ)과 같이 선행 명사만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현상을 중시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용표현 ‘바가지를 굶다’와 ‘비행기를 태우다’ 자체는 공식적인 통사부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형성되는 통사적 구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⁹⁾ 언중들은 관용표현인 ‘바가지를 굶다’를 사용할 때는 어휘부에 등재된 관용적 의미의 ‘바가지를 굶다’ 자체를 직접 인출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지, 어휘부에서 ‘바가지’와 ‘굶다’를 따로 인출하여 통사부에서 ‘바가지를 굶다’를 형성하면서 관용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관용표현의 내부가 공식적인 통사부에서 분리되는 현상과 관용표현 자체가 통사부에서 형성된 통사적 구성이나 하는 문제는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관용표현의 내부 분리는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된 다음에 경우에 따라 통사규칙의 적용을 받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내적 분리성 여부와 형식의 크기를 제외하면, (1)의 용언과 (2), (3)의 관용표현들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고, 통사부로 직접 인출되어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통사원자라는 공

8) 본고는 어미도 통사원자로 보기 때문에 ‘떡다’는 통사원자인 ‘떡-’과 ‘-다’가 결합한 통사적 구성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어미 ‘-다’가 결합한 ‘떡다’를 등재소의 기본형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였다.

9)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관용표현은 통사부에서 형성되지만 이는 통사적인 성격을 갖는다. 통사부에서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다가 관용적 의미를 획득하여 어휘부에 저장되는 것이다.

통점을 갖는다.¹⁰⁾

생성문법의 견해에서 보면 통사적 단어의 내부가 특정 통사현상에서 분리될 수도 있다는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은 어휘고도제약과 충돌하여서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어휘고도제약이 제안된 배경과 의도를 고려하면 분리성 통사원자라는 개념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¹¹⁾

- (4) 어휘고도제약(lexical island constraint)
: 통사규칙은 단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 (5) ㄱ. John refused the offer.
 ㄴ. John's refusal of the offer
- (6) ㄱ. John is easy[difficult] to please.
 ㄴ. *John's easiness[difficulty] to please

(4)의 어휘고도제약은 단어는 내적 비분리성을 갖기 때문에 통사규칙이 단어 내부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의 배경에는 형태부와 통사부를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초기 변형생성문법가들 중에서 변형주의적 견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통사부에서 (5 ㄱ)의 동사 ‘refuse’에 변형 절차를 적용하여 (5 ㄴ)의 파생명사 ‘refusal’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통사부에서 파생명사를 도출하고자 하는 이러한 견해는 (6)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생산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어휘론자들은 단어 형성은 어휘부에서 처리하고 통사부에서는 통사적 결합만을 다루자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어휘론

10) 이호승(2013)은 3가지 기준으로 통사원자들을 분류하였다. 우선 등재 여부인데 대부분의 통사원자들은 등재되지만, 임시어들은 어휘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형성 방식인데, 어휘부에서 형성되는 통사원자들도 있고, 단어화나 관용화처럼 어휘부 밖에서 형성되어 어휘부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통사부에서의 내적 분리성 여부인데, 비분리성 통사원자와 분리성 통사원자로 나뉜다. 이러한 다양한 통사원자들의 공통점은 등재 여부, 형성 방식, 분리성 여부와 관계 없이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통사부에서 통사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11) (4)의 어휘고도제약과 생성문법론자들의 견해는 조성식 외(1990)을 참고하였고, (5), (6)은 조성식 외(1990: 661)의 (1), (5)를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자의 견해를 일반화한 규정이 (4)의 어휘고도계약이다. 이 계약의 핵심은 통사부에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기 위한 변형규칙을 단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어 형성과 무관하다면 통사규칙이 단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3)을 대상으로 논의한 통사원자의 개념과 (4)~(6)에서 다룬 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통사원자의 개념과 고도계약

통사원자는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통사규칙이 적용되는 최소 단위로서, 새로운 통사원자의 형성과 관련된 통사규칙은 통사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런데 분리성 통사원자들은 분리성에 있어서 정도 차이를 보인다. 복합 서술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ㄱ. 공부-하다: <NP-가, NP-를>

- ㄴ. ??철수는 수학을 매일 공부를 열심히 했다.
- ㄷ. 철수는 수학을 {진지하게/*진지한} 공부를 했다.
- ㄹ. *철수가 수학을 한 공부를 좋아했다.

(9) ㄱ. 연설-하다: <NP-가, NP-에게, S-라고>

- ㄴ. 사장은 직원들에게 힘을 내라고 연설을 열심히 했다.
- ㄷ. 사장은 직원들에게 힘을 내라고 힘찬 연설을 했다.
- ㄹ. 사장이 직원들에게 힘을 내라고 한 연설은 훌륭했다.

(10) ㄱ. 계약을 맺다: <NP-가, NP-와, NP-을/S-기로>

- ㄴ. 영화는 주인과 월세를 내리기로 계약을 어제 맺었다.
- ㄷ. 영화는 주인과 월세를 내리기로 {유리하게/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
- ㄹ. 영화가 주인과 월세를 내리기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됐다.

(8)의 ‘공부-하다’와 (9)의 ‘연설-하다’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은 ‘하다’ 구문이 아니다. 타동사 ‘하다’가 주어와 목적어의 두 개의 논항을 갖는다

고 할 때, (8)의 ‘공부를’ 논항과 (9)의 ‘직원들에게’와 ‘힘을 내라고’ 논항은 타동사 ‘하다’의 논항구조로는 설명해 줄 수 없다. (8)의 문장들은 (8ㄱ)의 복합서술어 ‘공부-하다’의 논항구조로, (9)의 문장들은 (9ㄱ)의 복합서술어 ‘연설-하다’의 논항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서술어들은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고, 문장을 구성할 때는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서술어 기능을 한다.¹²⁾

(8)의 ‘공부-하다’는 (8ㄴ)의 부사어 삽입은 어색하고, (8ㄷ)의 선행 명사의 관형어 수식과 (8ㄹ)의 선행 명사의 관형절 표제명사 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9)의 ‘연설-하다’는 이 모든 통사절차가 잘 성립한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준다. 학교문법에서 과생동사로 처리된 ‘X-하다’ 동사가 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통사 현상으로 그 내부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과 ‘X-하다’라는 형식이 같더라도 선행 명사에 따라 분리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10)은 후행 동사가 ‘맺다’인 복합서술어 ‘계약을 맺다’의 경우인데, (10ㄷ)과 같이 선행 명사의 관형어 수식이 성립하지 않고¹³⁾ (10ㄴ)의 부사어 삽입 현상과 (10ㄷ)의 선행 명사의 관형절 표제명사 되기 현상은 잘 성립한다.¹⁴⁾ 지금까지 ‘바가지를 긁다’ 부류의 관용표현과 복합서술어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통사원자는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통사규칙이 적용되는 최소 단위이고, 통사부에서 내부가 분리되는 분리성 통사원자의 설정이 타당하고, 분리성 통사원자들의 분리성 정도는 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3장에서는 문제의 대상이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는 언어 단위인지, 그리고 내부가 통사부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분리성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복합서술어 ‘공부-하다’, ‘연설-하다’, ‘계약을 맺다’의 통사범주는 동사이다. 본고는 복합서술어 전체와 구성성분들의 통사범주와 그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이호승(2013)을 따른다. 그런데 논의 전개상 통사범주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복합서술어로 부르기로 하겠다.

13) ‘영회는 주인과 월세를 내린다는 계약을 맺었다’와 같이 ‘계약’의 논항이 관형어로 실현되는 경우는 선행 명사의 관형어 수식이 가능하다. (10ㄷ)은 (8ㄷ), (9ㄷ)과 평행하게 선행 명사의 논항이 아니라 부가어를 선행 명사의 관형어로 제시한 것이다.

14) (10)은 ‘X-하다’ 외에도 다양한 복합서술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복합서술어의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는 이호승(2003)을 참고할 수 있다.

Ⅲ. 분리성 통사원자의 유형별 검토

1. 파생어의 경우

파생어는 어휘부에서 형성되어 등재되는 전형적인 단어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생어들은 그 내부가 통사부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파생어로 인정되면서도 특정 경우에 한해서 그 내부가 분리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¹⁵⁾

- (11) ㄱ. 엄마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었-다.
 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었-다.
- (12) ㄱ. *별이 반짝은 인다.
 ㄴ. *별이 반짝 안 인다.
 ㄷ. *별이 반짝이면 ∅-일수록 내 마음도 환해졌다.
- (13) ㄱ. 무척 죄송은 스럽지만, 환불해 줄 수는 없습니다.
 ㄴ. ??안 죄송스러웠다 / *죄송 안 스러웠다.
 ㄷ. * 죄송스러우면 ∅-스러울수록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 (14) ㄱ. 별이 반짝은 거리는데, 아주 밝지는 않다.
 ㄴ. 별이 {?안 반짝거린다 / ??반짝 안 거린다}.
 ㄷ. 별이 반짝거리면 ∅-거릴수록 내 마음도 환해졌다.
- (15) ㄱ. 동생이 칭얼은 대는데, 울지는 않아.
 ㄴ. 동생이 { 안 칭얼거려야 / 칭얼 안 거려야} 할 텐데.
 ㄷ. 동생이 많이 칭얼거리면 ∅-거릴수록 짜증이 났다.

(11 ㄱ)의 사동사 ‘먹이다’의 어근¹⁶⁾ ‘먹-’과 사동접미사 ‘-이-’의 사이와 (11 ㄴ)의 피동사 ‘잡히다’의 어근 ‘잡-’과 피동접미사 ‘-히-’ 사이는 통사부

15) 합성어 중에서 ‘재산이 날아는 갔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의 합성동사 ‘날아가다’는 보조사 ‘는’에 의해 내부가 분리되기도 한다. 합성어는 통사적 구와의 구별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 다음 기회에 다루려고 한다.
 16) 본고는 학교문법에 따라 굴절론에서는 어간과 어미라는 용어를, 조어론에서는 어근과 파생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어근은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한다.

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없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라 따로 예를 들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파생어들은 (11)과 같이 비분리성 통사원자이다. 그런데 (12)~(15)와 같이 내부가 분리되는 파생어들도 있다. 또한 (12)의 ‘반짝이다’, (13)의 ‘죄송스럽다’, (14)의 ‘반짝거리다’, (15)의 ‘칭얼대다’를 대상으로 내부 분리성 정도를 살펴보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의 ‘반짝이다’는 보조사나 부정부사의 삽입이나 어근 ‘반짝’의 생략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13)의 ‘죄송스럽다’는 보조사 ‘은’의 삽입만 가능하고 부정부사의 삽입이나 어근의 생략 현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14)의 ‘반짝거리다’는 부정부사의 삽입은 어색하지만, 보조사의 삽입이나 어근 ‘반짝’의 생략은 잘 성립한다. (15)의 ‘칭얼거리다’는 세 가지 현상이 모두 자연스럽다.

(12)의 ‘반짝이다’는 내부가 분리되지 않으니 단어이고, (13)의 ‘죄송스럽다’, (14)의 ‘반짝거리다’, (15)의 ‘칭얼대다’는 내부가 분리될 수 있으니 단어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파생접사 ‘-이-, -스럽-, -거리-, -대-’가 어근과의 결합제약을 갖고,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파생어로서 단어, 즉 통사원자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리고 제시된 3가지 현상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2)의 ‘반짝이다’는 비분리성 통사원자이고, (13)의 ‘죄송스럽다’는 약한 분리성을 갖는 통사원자이고, (14)의 ‘반짝거리다’는 중간 정도의 분리성을 갖는 통사원자이고, (15)는 강한 분리성을 갖는 통사원자이다. 이러한 분리성 파생동사들은 2장에서 다룬 관용표현 ‘바가지를 긁다’나 복합서술어 ‘공부-하다’, ‘계약을 맺다’와 함께 분리성 통사원자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다. 분리성 파생동사, 관용표현, 복합서술어들은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고, 통사부로 인출되어 문장 구성에 사용되며 문맥에 따라 내부가 분리된다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다음은 ‘X-적’ 파생어의 예인데, 앞서의 파생동사의 경우와는 다르다. ‘X-적’은 어근 ‘X’와 파생접미사 ‘-적()’ 사이에는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지만, 어근 ‘X’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다른 어근과 접속되면서 확대되는 현상을 통해 내적 분리성을 드러낸다.¹⁷⁾

17) (16), (17), (18)은 김창섭(2011: 51)의 (7)을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 (16) ㄱ. 인적(), 동적(), 물적()
 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 (17) ㄱ. [정치, 문화]적, [사회 및 개인]적,
 ㄴ. [체력 유지]적
- (18) ㄱ. [통사론의 인접 분야]적
 ㄴ. [음운론과 통사론의 중간]적
- (19) ㄱ. [[통사론의 인접 분야]적
 ㄴ. [[음운론과 통사론의 중간]적
- (20) ㄱ. 위로-하다: <NP-가, NP-를>
 ㄴ. 격려-하다: <NP-가, NP-를>
 ㄷ. 사장은 직원들을 [[위로 및 격려]를 했다].

(16 ㄱ)은 불규칙적 어근인 한자어에 파생접미사 ‘-적’이 결합한 파생어들로서 *‘[인, 물]적’ 또는 *‘[인 및 물]적’과 같이 어근끼리의 접속 현상을 허용하지 않는 비분리성 통사원자들이다. 이에 반해 (16 ㄴ)은 규칙적 어근인 한자어에 ‘-적’이 결합한 파생어로서 (17 ㄱ)과 같이 규칙적 어근인 한자어들이 접속될 수 있다. 이 어근 접속 형식은 구적인 성격을 갖는데, 전통적인 입장은 (4)의 어휘고도제약을 어기기 때문에 통사원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분리성 통사원자를 인정하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17 ㄱ)의 [정치, 문화]적은 ‘정치적’과 ‘문화적’이 통사부에서 접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의 복합서술어 ‘위로-하다’와 ‘격려-하다’는 (20 ㄷ)과 같이 선행 명사들끼리 접속할 수 있는데, 이는 (17 ㄱ)의 ‘X-적’ 파생어들의 어근 접속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16 ㄴ)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등은 통사부에서 접속을 허용하는 분리성 통사원자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서면 (17 ㄴ)의 ‘유지적’의 ‘유지’가 ‘체력’이라는 논항적 관형어와 결합하는 것도 ‘유지적’이 분리성 통사원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⁸⁾

(18)은 ‘-적’이 구적 성분과 결합한 예인데, 성격상 (17)과 다를 바가 없

18) (17 ㄴ)은 [[체력] [유지적]]으로 분석하여 ‘유지적’이 논항 ‘체력’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때는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본고는 일단 김창섭(2011)과 같이 [[체력 유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수용하였다.

다. (17)의 ‘-적’ 선행 성분들도 구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창섭(2011)은 (17)의 ‘-적’은 파생접미사이고, (18)의 ‘-적’은 제한적인 분포를 갖지만 명사¹⁹⁾의 자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16), (17), (18)의 ‘-적’은 의미 기능이 동일한데도, 선행 성분의 종류에 따라 다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의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을 적용하면 (18)은 (19)와 같이 (19ㄱ)의 ‘분야적’의 ‘분야’와 (19ㄴ)의 ‘중간적’의 ‘중간’이 통사부에서 논항적 관형어인 (19ㄱ)의 [통사론의 인접], (19ㄴ)의 [음운론과 통사론의]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7ㄴ)에서 ‘유지적’의 ‘유지’가 통사부에서 논항적 관형어 ‘체력’과 결합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의 ‘-적’은 파생접미사인데, 어근이 규칙적 어근인 한자어인 경우에는 ‘X-적’은 분리성 통사원자로서 어근 ‘X’가 다른 어근과 접속하거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²⁰⁾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파생어로는 소위 ‘괄호매김역설(bracket paradox)’ 현상을 보이는 단어들이 있다.²¹⁾

- (21) ㄱ. [수력]-[발전소] / [수력발전]-소
- ㄴ. [거짓말]-[탐지기] / [거짓말탐지]-기
- ㄷ. [사료]-[분쇄기] / [사료분쇄]-기
- (17) ㄱ. [정치, 문화]적, [사회 및 개인]적,
- ㄴ. [체력 유지]적

(21)의 예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 표

19) 김창섭(2011)은 부접명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명사라고 하였다.

20) ‘X-적’ 외에도 [잘 생긴 원빈]-급(), ‘[위대한 애국자]-연()’, ‘[민 친척]-빨’, ‘[흰 밀가루]-투성이’ 등의 ‘원빈급’, ‘애국자연’, ‘친척빨’, ‘밀가루투성이’는 분리성을 갖는 통사원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이 어느 정도 있고 분리성의 정도와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 보려고 한다.

21) 채현식(2010)에 따르면 ‘괄호매김역설’ 현상을 보이는 단어에는 ‘해돋이’, ‘돈벌이’, ‘고기잡이’ 등의 ‘N-V-Suf’ 형도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비분리성 단어로서 형태 분석상의 ‘괄호매김역설’ 현상으로 판단되어 통사적 관점에서의 분리성 통사원자의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해 여기서는 제외했다.

제어로 처리되어 있다. 채현식(2010)은 (21)을 한 단어로 보는데, 형태적 분석 기준으로는 ‘[수력]-[발전소]’와 같이 분석해야 하나, 의미적 기준을 적용하면 ‘[수력발전]-소’로 분석될 수 있어 괄호매김역설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는 유추론자로서 계열관계에 기반한 유추를 형태 분석의 주요 기제로 사용하여 ‘[수력]-[발전소]’의 분석을 주장한다. 본고는 둘 중 어떤 분석이 더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한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을 적용하면 ‘[수력발전]-소’라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21)의 예들은 성격상 (17)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7ㄴ)의 분리성 통사원자 ‘유지적’의 ‘유지’가 논항적 관형어인 ‘체력’과 결합하는 것처럼, (21)의 ‘발전소’를 분리성 통사원자로 본다면 ‘발전소’의 ‘발전’이 ‘수력’과 결합하여 ‘[수력발전]-소’라는 단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분리성 통사원자 개념이 단어 분석 및 형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파생접미사로 처리했지만, 선행 성분이 구적 성격을 가져서 그 문법적 지위가 논란이 된 또 다른 예로는 ‘-답-’이 있다.

- (22) 정답다, 꽃답다, 풀답다, 참답다, 실답다, 아름답다
 (23) ㄱ. 그 집은 재벌이 사는 집답다.
 ㄴ. 영화는 소문난 주부답게 일을 잘한다.
 ㄷ. 이 지역의 발전은 김 시장이 이끈 발전답게 성과가 크다.
 (24) ㄱ. 철수는 수학을 공부는 했다.
 ㄴ. 너는 그런 일을 경험도 하는 게 필요해.
 ㄷ. 그런 사건은 내 구역에서 한 번도 발생 안 했다.

(22)는 김창섭(1991)에서 어근이 ‘-답-’과 결합한 형용사로 제시된 예들이다.²²⁾ 이 형용사들은 어근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비분리성 통사원

22) ‘꽃답다’는 ‘그 꽃들은 꽃꽂이 전문가가 사온 꽃답다’와 같이 ‘꽃답다’의 ‘꽃’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는데, (22)의 ‘꽃답다’는 ‘꽃처럼 아름답다’는 의미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22)의 예들은 모두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자이고, 이때의 ‘-답-’은 파생접미사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23)의 ‘-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창섭(2011)에서는 (23)의 ‘-답-’은 명사구와 결합하기 때문에 파생접미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주장한다.²³⁾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답-’의 논항구조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답-’이 주어와 보어를 논항으로 갖는 두 자리 동사라고 한다면, 서술어는 주어 논항과 보어 논항에 선택제약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답-’이 아니라 ‘-답-’의 선행 명사가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ㄱ)의 주어 ‘집’은 ‘집답다’의 ‘집’에 근거하고, (23ㄴ)의 ‘영희’는 ‘주부답게’의 ‘주부’에 근거하고, (23ㄷ)의 ‘이 지역의 발전’은 ‘발전답게’의 ‘발전’에 근거한다. 이러한 양상은 ‘X-하다’ 복합서술어와 유사하다. (24ㄱ)의 행동주역 주어 ‘철수는’은 ‘공부’의 행동주역 논항이 ‘하다’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 실현된 것이다. (24ㄴ)의 경험주역 주어 논항인 ‘너’는 복합서술어 ‘경험-하다’의 ‘경험’의 논항이, (24ㄷ)의 대상역 주어 논항인 ‘그런 사건’은 ‘발생-하다’의 ‘발생’의 논항이 ‘하다’의 도움을 받아 통사적인 주어로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23)의 문장 형성과 관련해서 어휘부에서 파생접미사 ‘-답-’이 명사인 ‘집’, ‘주부’, ‘발전’과 결합하여 분리성 통사원자인 형용사 ‘집답다’, ‘주부답다’, ‘발전답다’가 형성된 다음에, 통사부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²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집답다’, ‘주부답다’, ‘발전답다’는 주어 논항을 갖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된다. 본고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을 적용하면 파

‘-답-’ 파생형용사들이다.

23) 김창섭(2011)은 부접동사라고 했는데, 이는 동사의 하위부류이다. 그리고 이때의 동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24) 익명의 심사자는 (8)의 복합서술어 ‘공부-하다’나 (2)의 관용표현 ‘바가지를 긁다’는 통사부에서 형성된 분리성 통사원자로서 어휘부에서 형성된 통사원자로서 통사부에서 분리현상을 보이는 (23)의 ‘-답-’ 구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본고는 일관되게 ‘공부-하다’나 ‘바가지를 긁다’는 어휘부에 등재된 통사원자인데, 내적 분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사부에서 특정 현상에서 분리 현상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8)의 ‘공부-하다’, (2)의 ‘바가지를 긁다’, (23)의 ‘X-답-’은 모두 일단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는 통사원자로서 잠재적으로 내적 분리성을 갖고 있다가, 통사부에서 경우에 따라 이 잠재적 분리성이 실현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생형용사가 관형어의 수식으로 내부가 분리되는 현상도 문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본고의 분리성 통사원자 개념은 확립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23)의 ‘-답-’ 구문의 분석에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기능적 복합구성²⁵⁾의 경우

국어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요소로는 조사와 어미가 있다. 그런데 조사와 어미가 아니면서도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형식도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둘 이상의 단어²⁶⁾들이 복합된 형식들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가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다’에서 ‘-는 바람에’는 ‘-는’, ‘바람’, ‘에’로 구성된 형식인데, 명사 ‘바람’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이 복합구성 전체가 ‘이유, 원인’의 의미기능을 가지면서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한다. ‘-는 바람에’는 문법화 과정에 있는 형식으로 아직 연결어미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능적 복합구성이다. 또한 기능적 복합구성들은 구성요소의 합성적 의미가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기능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기능적 복합구성들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두 단어 이상의 결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사나 어미와는 달리 표기법상으로도 구성 요소들을 띄어 쓰고 있다. 이런 처리는 이들이 내적으로 아직 통사적 구성의 성격

25) ‘-는 바람에’와 같은 형식은 우연적 구성, 우설적 형식, 상당어구, 복합 기능 구성 등의 용어로 명명되고 있는데, 본고는 문병열(2014)의 ‘복합 기능 구성’을 수용하되 ‘기능적 복합구성’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본고는 기능적 복합구성들도 통사원자라고 생각하기에 ‘복합구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연구의 관례에 따랐다.

26) 본고는 통사부에서 구 이상의 단위로 결합할 수 있는 요소들은 통사적 단어로 본다. 조사와 어미는 통사적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

27) 문병열(2014)는 의미적 기준, 기능적 기준, 결합적 기준을 동원하여 어떤 통사적 구성이 복합구성으로 변화하여 어휘부에 등재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문병열(2014)의 논의를 수용하여 기능적 복합구성들이 어휘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하겠다.

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들이 앞서 보았던 분리성 통사원자들처럼 통사부에서 그 내부가 분리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²⁸⁾

다음은 조사에 상당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복합구성들이다.²⁹⁾

- (24) ㄱ. 철수는 복지 문제[에*{는/도/직접}] 대하여 토론했다.
 - ㄴ. 복지 문제[에*{는/도/직접}] 대한 문제
- (25) ㄱ. 창립 20년을 즈음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ㄴ. 창립 20년에 즈음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26) ㄱ. 몸살에도 불구하고 출근했다.
 - ㄴ. 형편에 비추어 볼 때, 해외여행은 어렵다.
 - ㄷ. 너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 ㄹ. 1등은 고사하고 중간도 못 가는 성적이다.

(24)의 ‘에 대하여’와 ‘에 대한’은 ‘대하-’가 일반적인 서술어 기능³⁰⁾을 상실하고 조사 상당의 기능적 복합구성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형식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에 대하-’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보고, 문맥에 따라 어미 ‘-어’와 ‘-ㄴ’이 교체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 상당 기능을 수행하는 형식은 ‘에 대하-’가 아니라 ‘에 대하여’와 ‘에 대한’ 전체이므로 이 두 형식은 그 내부가 어미 교체로 인해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에 대하여’와 ‘에 대한’이 독립적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형식은 통사부에서 다른 어떤 경우에도 내부가 분리되는 경우가 없으니 비분리 통사원자라고 해야

28) 도재학(2014)이 제시한 바와 같이 문법범주를 실현하는 기능적 복합형식들은 그 수가 많다. 본고의 목적은 어휘부에 등재되는 통사원자이지만 아직 완전히 문법화되지 않아서 통사적 구성의 모습을 유지하는 기능적 복합구성들이 통사부에서 내적 분리성을 갖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조사와 양태 의미 상당의 기능적 복합구성만 다루려고 한다.

29) (24), (25), (26), (27)의 예는 문병열(2014, 2015)에서 제시된 예들을 참고하였다.

30) 서술어 기능의 핵심 사항은 주어 논항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대하-’는 독립적인 주어를 가지지 못한다.

한다. 그런데 이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두 복합형식이 ‘에 대하-’를 공유하고 있다는 형식적 관련성과 조사 상당의 기능을 한다는 기능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형식이 독립적인 등재소로 어휘부에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24)와 같이 형식적, 기능적 관련성을 갖는 기능적 복합형식의 어미 교체 양상은 그 내부가 분리되는 분리성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24)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사나 부사는 ‘에 대하여’와 ‘에 대한’의 내부에 삽입되지는 못한다. (25)의 ‘을/에 즈음하여’는 어미 대신에 조사가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을/에 즈음하여’도 어휘부에 등재되는 하나의 통사원자고 했을 때, 조사의 교체는 그 내부가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을/에 즈음하여’도 그 내부에 조사나 부사어가 삽입되지는 못한다.³¹⁾

그런데 조사 상당의 기능적 복합구성 중에는 내부가 분리되지 못하는 예들도 있다. (26)의 기능적 복합구성들은 조사와 어미의 교체도 없고 그 내부에 보조사나 부사도 삽입될 수 없다. 이 방면 연구자들은 이 기능적 복합구성들이 기능이나 분포적인 측면에서 아직 완전한 조사로 문법화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래의 통사적 구성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비록 표기법상으로는 통사적 구성이지만, 통사부에서 분리성 현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분리성 통사원자이다.

문병열(2014), 도재학(2014) 등에서 (24), (25), (26)의 구성들을 단어나 통사원자, 통사적 단어 등이 아니라 통사적 구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복합구성, 우연적 구성 등으로 명명한 것은 이들이 전통적인 단어 개념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기능적 복합구성들이 아직 조사로 문법화되지 않았고, 단어형성법상 전형적인 단어인 단일어, 복합어들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부 형식이 전통적인 단어이든 기능적 복합구성이든 간에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통사부에서 사용된다면 통사

31) 문병열(2005)는 조사 상당의 기능적 복합구성이 40개가 있다고 보았는데, 조사나 어미가 교체되는 것으로는 ‘에 걸쳐/걸친’, ‘에 관하여/관한’, ‘에 따라/따른’, ‘에/에게 있어’, ‘에/에게 대고’ 등이 있다.

원자의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조사 상당의 기능적 복합구성이란 명칭은 관례적인 것이고, 이들은 통사원자로서 분리성을 갖기도 하고 갖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³²⁾

다음은 도재학(2014)에서 양태 범주의 의미를 갖는 기능적 복합구성으로 제시된 예들이다. 이들도 비분리성 통사원자와 분리성 통사원자로 나뉜다.³³⁾

- (27) ㄱ. 그는 집에 {간 / 갈} 것 같다.
 ㄴ. 속을 보여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기가 찰 노릇이다.
 (28) ㄱ. 너는 학교에 {가야 / 가야만} 한다.
 ㄴ. 철수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 수도} 있다.
 (29) ㄱ. 나는 이제 군인이 되고자 한다.
 ㄴ. 철수가 그 일을 할 턱이 없다.
 ㄷ. 이제 집에 갈 참이다.

(27 ㄱ)의 ‘-ㄴ/르 것 같-’은 개연성을 나타내는 어미 상당의 기능적 복합구성이고, (27 ㄴ)의 ‘-ㄴ/르 노릇 이-’는 부정적인 감정 양태를 나타내는 어미 상당의 기능적 복합구성이다. 이들은 모두 어미 ‘-ㄴ’과 ‘-르’이 교체하기에 분리성 통사원자이다. (28 ㄱ)의 ‘-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기능적 복합구성이고, (28 ㄴ)의 ‘-르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능적 복합구성이다. 이 구성 내부에 보조사가 삽입될 수 있으니 이들도 모두 분리성 통사원자이다. 그런데 (29 ㄱ)의 ‘-고자 하-’, (29 ㄴ)의 ‘-르 턱이 없-’, (29 ㄷ)의 ‘-르 참이-’는 어미 교체도 없고 그 내부에 보조사나 다른 단어가 삽입될 수도 없어서 비분리성 통사원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미 상당의 복합구성도 비분리

32) 본고는 비분리성 통사원자가 원형적인 통사원자이고, 분리성 통사원자는 주변적인 통사원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분리성 통사원자들도 분리성의 정도나 내적 성분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원형성에서 다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아직은 본고의 통사원자 개념이 시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더 연구가 진행되어 통사원자의 유형 분류와 체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적절한 하위개념들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3) (27), (28), (29)의 예들이 기능적 복합구성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도재학(2014)를 그대로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성 통사원자와 분리성 통사원자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관용표현의 경우

관용표현은 단어의 문자적 의미 또는 구성성분들의 합성적 의미가 아니라, 관용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유적으로 획득된 제3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관용표현이 통사부에서 공식적인 통사규칙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화자는 관용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휘부에 등재된 관용표현을 직접 인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³⁴⁾ 본고가 주장하는 통사원자의 핵심 개념이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공식적인 통사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 관용표현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에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는다.

문금현(1996)은 관용표현을 형식적 차원에서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의 4가지로 분류한다.³⁵⁾ 관용어는 전통적인 단어에 해당하는데 그 내부가 분리되는 경우가 없다.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은 둘 이상의 단어들 결합하여 하나의 통사원자를 이룬 관용표현들이다. 둘 이상의 단어들 결합한 형식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내부의 분리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구성 성분들끼리 긴밀하게 결합된 통사적 고정성을 갖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내부 분리가 상당히 제약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관용표현들은 관용화 정도, 내적 구성 방식의 차이 등에 따라 내적 분리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³⁶⁾

우선 관용구 중에서 체언형과 용언형을 대상으로 분리성 여부와 그 정도

34) 관용표현의 정의, 특성, 유형 분류 등 관용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문금현(1996)을 따랐다.

35)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이라는 용어는 통사원자 이상의 상위 단위인 구, 절, 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 용어들보다는 구적 관용표현, 절적 관용표현, 문적 관용표현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례에 따라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36) 문금현(1996)은 형식적 차원에서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을 구성성분들의 범주와 결합방식에 따라 자세하게 분류해 놓았다. 본고는 통사원자 개념이 이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 분리성을 갖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만 예를 다루고자 한다.

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³⁷⁾

- (30) ㄱ. 우물 안 개구리 / 빛 좋은 개살구
 ㄴ. 우물 {안/안의} 개구리 / *빛{이/은/도} 좋은 개살구
 ㄷ. *[우물 안 [저 개구리]]
 / *[빛 [아주 좋은] 개살구], *[빛 좋은 [저 개살
 구]]³⁸⁾
 ㄹ. *[[저기 있는 우물] 안 개구리] / *[[길 빛] 좋은 개
 살구]
- (31) ㄱ. 내가 ‘우물 안의 뭐’라고?
 ㄴ. ‘빛 좋은 뭐’라고 하던데? 그게 뭐지?

(30)은 체언형 관용구들로서 ‘관형어+명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⁹⁾ 문금현(1996: 120)은 체언형 관용구는 통사적 제약이 매우 강해서 내적 분리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았다. (30ㄷ)과 같이 관형사나 부사의 삽입을 허용하지 않고, (30ㄹ)과 같이 관용표현 밖의 관형어가 관용표현의 일부 명사만을 수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화자들은 체언형 관용구를 내부가 비분리되는 전통적인 단어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30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물 안 개구리’에는 관형격조사 ‘의’의 삽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31)과 같이 문맥에 따라서는 체언형 관용구의 일부가 대명사로 대용될 수 있다. (31 ㄱ)은 화자가 청자에게 화를 내면서 반문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고, (32ㄴ)은 화자가 관용표현의 일부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물어보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체언형 관용구는 통사적 제약이 강해서 대부분의 통사현상에서는 내부가 분리되지 않지만, 화자들은 여전히 그

37) 문금현(1996)는 관용표현의 통사적 제약을 검토하기 위해, 어순재배치, 삽입, 대치, 생략, 대용, 분열문 구성, 주제화 등을 적용하고 있다. 본고는 내적 분리성의 가능성 및 정도 차이에만 초점을 두어 몇 가지 현상만 다룬다.

38) 문자적인 의미로는 ‘빛 좋은 저 개살구’가 성립하지만, 관용적 의미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39) 문금현(1996)은 ‘콩가루 집안’, ‘바늘과 실’, ‘개 발의 편자’, ‘개 밥에 도토리’, ‘강 건너 불구경’ 등의 다양한 체언형 관용구를 소개하였다. 본고는 이 중에서 하나만 다루지만, 다른 유형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내부가 분리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언형 관용구는 체언형 관용구와 비교해 보면 매우 다양한 통사현상이 적용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내적 분리성이 강한 통사원자라고 할 수 있다.

(32) ㄱ. 영희는 철수를 바가지를 {마구/안} 굽었다.

ㄴ. 철수는 영희가 굽는 바가지가 그리웠다.

(33) ㄱ. 그는 도박에서 손을 결코 못 뺐 것이다.

ㄴ. *그가 도박에서 뺐 손을 자랑스러워했다.

용언형 관용구는 문금현(1996: 120)에서 많은 통사현상이 적용될 정도로 내적 분리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내적 분리성 정도는 예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32)의 ‘바자지를 굽다’는 (32 ㄱ)과 같이 부사 삽입도 허용하고 (32 ㄴ)과 같이 관용표현의 명사가 관형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33)의 ‘손을 떼다’는 (33 ㄱ)의 부사 삽입은 허용하지만, (33 ㄴ)의 관형절의 표제명사 되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문금현(1996: 120)은 관용절이 관용구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내부 분리성을 갖는다고 본다. 관용절도 예에 따라 분리성의 정도가 다르다.

(34) ㄱ.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나는 입맛이 상당히 썩었다.

ㄴ. 그래도 썩 입맛은 어쩔 수가 없었다.

(35) ㄱ. 그런 일을 하다니 철수가 간덩이가 많이 부은 모양이다.

ㄴ. *영희는 부은 간덩이를 후회했다.

(34)의 ‘입맛이 썩다’는 ‘입맛이’와 ‘썩다’가 주술관계를 맺으면서, 주어 ‘나는’을 요구하는 서술어로 기능하는 관용절이다. (34 ㄱ)은 부사 삽입을, (34 ㄴ)은 ‘입맛’의 관형절의 표제명사 되기를 허용하는 예이다. (35)의 ‘간덩이가 붓다’도 관용절인데, (35 ㄱ)의 부사 삽입은 허용하지만, (35 ㄴ)의 ‘간덩이’의 관형절 표제명사 되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관용절도 예에 따라서 내부 분리성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금현(1996:120)은 관용문에는 부사 삽입, 단어의 대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통사현상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⁴⁰⁾ 이는 관용문이 관용구나 관용절보다 더 강하게 인용문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36) ㄱ. ‘빈대도 낫짝이 있다’고 어떻게 이곳에 오니?
 ㄴ. *‘빈대도 낫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어떻게 이곳에 오니?
 ㄷ. *‘빈대는 낫짝 있’는데 너는 왜 그러니?
- (37) ㄱ.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 ‘귀신이 진짜로 곡할 노릇이다.’
 ㄷ.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 (38) ㄱ. ‘빈대도 뭐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낫짝도 없니?
 ㄴ. 귀신이 아니라 내가 곡할 노릇이다.

(36ㄱ)의 ‘빈대도 낫짝이 있다’는 (36ㄴ)의 부사 삽입 현상, (36ㄷ)의 조사 교체 현상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37ㄱ)의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는 (37ㄴ)의 부사 삽입 현상, (37)의 조사 교체 현상을 모두 허용한다. (36)의 ‘빈대도 낫짝이 있다’는 (38ㄱ)과 같이 문맥에 따라 ‘낫짝’이 대명사로 대응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38ㄴ)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의 ‘귀신이’가 ‘귀신이 아니라 내가’로 확대 변형되기도 하였다. (36)과 (37)의 현상은 관용문도 예에 따라서 내적 분리성의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38)의 현상은 (36)의 관용문과 같이 통사현상의 적용이 매우 제약되더라도 특정 문맥이 주어지면 관용문의 일부가 변형되어 내적 분리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언중들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관용문들을 담화상에서 사용할 때는 형식적으로 잘 변형시키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용문의 내부가 통사적 구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특정 담화상황에서는 표현의도에 맞게 형식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의 내적 분리성 여부를 검토했는데, 분리

40) 문금현(1996)이 제시한 통사현상 중에서 용언형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의 어미 결합 양상은 이들이 문장에서 서술어 성분으로 사용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3.2의 조사 상당의 기능적 복합구성의 경우와는 달리 내적 분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성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일지라도 내적으로 통사적 구성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용표현들은 기본적으로 내적 분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용표현들의 내적인 통사적 성격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관용표현들이 통째로 어휘부에서 인출되어 통사부의 문장성분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고의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IV. 맺음말

본고는 통사론적 단어의 내부가 통사부의 일부 현상들에서 분리되는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이 파생어, 기능적 복합구성, 관용표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전통적인 단어 정의에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의 다양한 언어 층위의 특성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본고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통사원자를 어휘부에서 직접 인출되어 통사부의 규칙이 적용되는 최소 단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리성 통사원자는 기존의 어휘고도제약과는 달리 새로운 단어 형성과 무관하다면 통사규칙이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분리성 통사원자들은 예에 따라 분리성 정도가 달라서 그 내부를 분리하는 통사 현상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파생어들은 대부분이 비분리성 통사원자이다. 하지만, ‘반짝거리다’, ‘죄송스럽다’, ‘칭얼대다’는 파생동사이면서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조사나 부정부사의 삽입, 어기의 생략을 허용하기도 한다. ‘X-적’ 파생어들은 어기가 규칙적 어근이면, 어근끼리의 접속도 가능하고, 어근이 확대되어 어근의 논항과 통사적으로 결합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X-적’이 분리성 통사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괄호매김역설 현상이나 ‘-답-’이 통사적 구와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도 ‘X-적’ 파생어와 마찬가지로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능성 복합구성은 두 단어 이상의 결합 형식으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형식은 구성 성분의 합성적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문법기능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고, 통사부에서 사용될 때는 어휘부에서 통째로 인출되는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기능적 복합구성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형식이어서 그 내부가 분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기능적 복합구성이 통사부에서 내부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기능적 복합구성은 문법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비분리성 통사원자와 분리성 통사원자로 나뉘는데, 내부가 분리되는 경우도 조사나 어미의 교체 또는 보조사의 삽입 정도만 확인되고 다른 통사적 절차는 적용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용표현은 구성성분의 문자적 또는 합성적 의미가 아니라 제3의 관용적 의미를 갖고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어서 본고의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는다. 또한 관용표현 중에서 관용어는 비분리성 통사원자이지만,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은 모두 분리성 통사원자의 자격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관용표현들 중에는 분리성 정도가 달라서 특정 문맥이 주어질 때 관용표현의 일부 성분이 의문사로 대응되거나 형식상의 변화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내부가 분리되는 관용표현도 있고, 단어 삽입이나 관형어나 부사어의 수식 또는 관형절의 표제명사 되기 등의 다양한 통사 현상이 적용되는, 내적 분리성이 강한 관용표현도 있다.

본고가 주장하는, 통사적 측면에서의 분리성 통사원자 개념은 아직도 시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고의 통사원자 개념이 음운론적 단어, 형태론적 단어, 어휘적 단어 등과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호관련을 맺는지가 분명해지고, 다양한 예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했을 때 어떤 개념적 효용성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충분히 검토되면 본고의 통사원자 개념은 더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분리성 통사원자의 개념도 더 굳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⁴¹⁾

41) 익명의 심사자들 중에서 한 분은 분리성 통사원자가 어휘부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은 분리성 통사원자 개념을 인정하면 통사원자의 설정 근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앞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도움을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 김의수, 「어휘부와 통사론」, 『국어학』 66, 국어학회, 415-443, 2013.
- 김창섭, 「
들의 과」, 『형태』, 태학사, 151-181, 1991.
- 김창섭,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 『국어학』 62, 국어학회, 47-72, 2011.
- 도재학, 「우언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259-304, 2014.
- 목정수, 「형태론과 통사론 사이에-통사론적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27-147, 2007.
-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문병열, 「어휘부 등재소와 복합구성」, 『국어학』 69, 국어학회, 135-166, 2014.
- 문병열, 「한국어 조사 상당 구성에 대한 연구-[조사+용언 활용형]의 경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진호,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회』 123, 서울대학교, 1994.
- 박진호,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361-379, 2003.
- 시정곤, 「등재소 설정의 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22, 한국어학회, 185-214, 2004.
- 이호승, 「국어 복합서술어 연구-[명사+조사+동사] 구성의 경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호승, 「분리성 통사원자에 대하여」,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181-208, 2013.
- 임홍빈,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55-76, 1979.
- 임홍빈·장소원,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5.
- 조성식 외, 『영어학사전』, 신아사, 1990.
- 채현식, 「정보의 처리와 표상의 측면에서 본 괄호매김역설」,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학회, 147-169, 2010.
- 채현식, 「어휘부란 무엇인가」, 『국어학』 66, 국어학회, 305-333, 2013.
- 최형용, 「어휘부와 형태론」, 『국어학』 66, 국어학회, 361-413, 2013.
- 한정환,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 34-3, 한국언어학회, 761-788, 2009.
- 한정환, 「통사 단위 단어」,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13-69, 2011.
- 허철구, 「국어의 합성동사 형성과 어기분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7.
- BLOOMFIELD, L.,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1933.

- BOOIJ, Geert, *Construction Morp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BROWN, Keith etc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Elsevier, 2006.
- CHOMSKY, N.,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Jacobs, R. & P. Rosenbaum(eds.) (1970), 184-221, 1970.
- Di SCHIULLO, Anna-Maria & Edwin WILLIAMS, *On the Definition of Word*, The MIT Press, 1987.
- HARLOW, S. J., “Transformational Grammar: Evolution”, in Brown, Keith etc(eds.),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13*, 22-39, 2006.
- HOCKETT, C. F.,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acmillan Company, 1958.
- JACOBS, R. A. & P. S. ROSENBAUM(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Ginn and Company, 1970.
- JULIEN, M., “Word”, in Brown, Keith etc(eds.),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13*, 617-624, 2006.

❖ ABSTRACT

A Study on Some Types of Separable Syntactic Atoms in Korean

Lee, Ho-Seung

This paper aims 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Korean separable syntactic atom, of which inner parts is separable in syntax, and at examining whether or not this concept can apply to derivatives, functional complex constructions,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I defined a syntactic atom as a minimum unit which is drawn directly from lexicon and then is applied to syntactic rules. And I insist that so-called 'lexical island constraint' has some problems and that the syntactic rules can be applied to inner parts of syntactic atom, if the syntactic rules is irrelevant to new syntactic atom formation.

The greater part of derivatives is non-separable syntactic atoms. But the likes of '반짝거리다', '죄송스럽다', '칭얼대다' are the separable syntactic atoms. The degree of separability of them is different in the insertion of Korean particles or negative adverbs and the omission of root of syntactic atom. The derivatives of 'X-작', of which roots is regular nominal roots, permit the syntactic link between roots and the syntactic combination of the root and its argument. These kinds of derivatives is separable syntactic atoms. Also the derivatives of 'bracket paradox' and 'X-답' derivatives is separable syntactic atoms.

All functional complex constructions are not separable syntactic atoms. According to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inner parts of some are separable, some is non-separable. Separable functional complex constructions only permit the switching of endings or *Josas* but not application of other syntactic rules. All idiomatic expressions which are composed of two or more syntactic atoms are separable syntactic atoms. Some of them have so strong separability to allow the insertion of syntactic atom, adverb or adnominal modification and the noun in idiomatic expression to become the head of the relative clause. And some idiomatic expressions which have weak separability only permit interrogative's substitution or form change in fraction of idiomatic expressions.

Key Words

분리성 통사원자, 어휘부, 어휘고도제약, 파생어, 기능적 복합구성, 관용표현
separable syntactic atom, lexicon, lexical island constraint, functional complex
construction, idiomatic expression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09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